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4월 18일(주일) 제1340호

장애인과 함께하는 온누리공동체



사진은 2017년 사랑챔버 희망콘서트

4월 17~18일 '장애인주일' 기념행사 장애인 부서 예배 특순, 기프트 박스 선물

4월 17일과 18일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닫는 의미 있는 날이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장애인주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풍성한 행사가

이어진다. 4월 17일과 18일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는 사랑챔버(발달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와 온사랑합창단(청장년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특순을 선보인다. 토요일 1부와 3부 예배 온사랑합창단, 토요일 2부와 4부 예배 사

랑챔버, 일요일 1부, 3부, 5부 예배 사랑챔버, 일요일 2부와 4부 예배 온사랑합창단의 특순 영상이 상영된다.

장애인예배부서(꿈사랑부; 6~13세 장애인 아동, 사랑부; 14~19세 발달장애인 청소년, 예수사랑부; 19세 이상 청장년 발달장애인, 누리사랑부; 성인 지체장애인 예배공동체)에서는 장애인 지체들에게 '기프트 박스'를 선물한다.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받아가면 된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에는 우편으로 기프트 박스를 보내준다. 기프트 박스에는 떡과 다과류, 치약, 핸드크림 등이 들어 있다.

박철웅 목사(장애인사역본부장)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속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들을

차별 없이 똑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관련기사 7면>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한국 교회에서는 1989년부터 4월 20일 전후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선포하고 지키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시작!

공동체 소속되지 않은 20세 이상 대상 무공동체, 전도대상자, 구도자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작된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도들이 대상이다. 무공동체, 전도대상자, 구도자까지 포함하는 맞춤 온라인 공동체이다.

그동안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필요성을 못 느낀 성도들에게 온라인커뮤니티가 양육과 돌봄, 신앙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

신앙생활 전반을 온라인커뮤니티 담당목회자와 리더들이 도와준다.

온누리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커뮤니티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영적 돌봄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커뮤니티 참가 신청은 4월 17일(토)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 활동은 5월 11일

(화)부터 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전체 모임과 소그룹을 진행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아직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무공동체 성도, 전도대상자, 구도자들이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인 온라인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면서 영적 성숙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장애인 자활을 위해 기증해주세요"

4월 18일까지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

장애인 자활을 돕는 온누리교회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이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물품을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설치된 굿윌스토어 수거함이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 기증하면 된다. 굿윌스토어 지점을 방문해서 기증하거나 택배, 방문 수령(100L 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대형가구,

설치가 필요한 전자제품, 오래된 아동 전집, 큰 플라스틱 장난감, 사용한 침구, 속옷 이외에는 모두 기증할 수 있다. 흥세원 원장(굿윌스토어)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기증해준 물품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된다"며 기증을 부탁했다. 문의: 1670-9125

/ 김영선 기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4월 24~25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NGO 더멋진세상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를 주제로 4월 24일(토)과 25일(주일)에 정기후원약정을 실시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betterworld.or.kr)에서 동참할 수 있다. 신규 또는 증액 후원을 선택하면 된다.

정기후원약정서에는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작성 금액, 작성 방법 등을 선택하면 된다. 후원금은 더멋진마을 조성사업(개발), 다음세대 희망심기(교육),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의료, 보건), 긴급구호, 난민(구호) 등에 사용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22개국 27개 마을에서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567,541명의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신자바키라 자매(아프리카 르완다)는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세 명의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엄마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아리주마 형제(아프리카 세네갈)는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낯새나고 더러웠던 우리 마을이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지구촌 이웃들이 더 멋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5면>

문의: 02-2271-2248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박탈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부여했다고 이해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임명하셨다. 비록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뒤떨어졌으나 피조세계에서 하나님 대리인으로서 권한과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를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로 인권의 보편성은 더 명확해지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에 누구도 뺏을 수 없다.

현대 무신론에서는 인권도 정부가 제정한 실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 때문에 정권이나 정당의 변덕에 의해 임의로 추가 혹은 삭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의 정의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게 변해 버린다. 정부에서 인권이 상실된 사례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 히틀러의 인본주의적 전체주의 등에서 볼 수 있다. 랭

던 길키는 “법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추상적으로 말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기심을 통제하여 사회를 파괴하는데 사용되기 보다는 창조적으로 이끄는 데 사용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요구한 정의이다. 칼빈 바이스너는 “정의는 올바른 기준에 근거하여 각 사람이 받아 마땅할 보상을 선사하는 것이다. 올바른 기준이란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인데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기반하고 있다. 규칙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주시고, 그 규칙을 범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응징을 함으로써, 악한 자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정의란 인간 관계 속에서 진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덕률에 근거한 법이 사회의 각 기관과 가정, 교회, 직장, 국가에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각 기관들이 자유롭고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각 사회기관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각 사회기관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고유의 기능이 있고 그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게 실행할 정치자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가정의 임무인 출산, 양육,

교육에 관여하는 것, 회사와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를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 세금으로 특정 종교를 돕는 것 등은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각 사회기관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정한 규칙을 제정해 활동과정에서 생기는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세계관에서는 가정, 교회, 직장 같은 전통적 사회기관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기능을 상실한 다른 기관들의 영역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 국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세속 정부에게 훨씬 많은 권한을 양도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구원과 인간공동체의 회복이 개인의 회개와 구속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그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 정의를 촉진하려는 정부를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하는 지도자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정부 관리나 유권자로 참여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 영향력 행사, 여론 형성, 선거에서 반대 의사 표현, 탄원서에 서명 등 여러 방식으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

이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루어낸 성경적 방법이다. 반면 정부의 권위에 억눌려 반대 의사는 전혀 표시하지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오랜 압제에 굴복하고 있다가 급격하게 폭발해 정권을 전복시킨 것이 프랑스혁명과 1차 러시아 혁명이다. 악한 정부라고 뒤엎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무신론에 근거한 유흥혁명만은 무정부 상태, 피의 숙청, 과격한 개혁이 현실에 정착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다 곧 구체제로 회귀한다.

성경은 국가와 하나님의 공의가 대립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의해 복음전파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대답을 삼기하라. 프랜시스 웨퍼는 “우리는 어떤 시점에 국가나 국가를 대리하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악한 정부의 통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다니엘과 세 친구,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무릅쓴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로 인해 정의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며, 하나님은 그런 현신을 기뻐하신다.

묵상: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 상급자의 명령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인본주의 우상에 대한 고찰 2

자본주의의 발생과 폐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념에 대한 논쟁이 많다. 인본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이념은 근거가 없다. 만약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自己義)에 의한 착각에 불과하다. 때가 되면 그것이 허구인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든 자본주의적인 정책이든 그것이 성경적일 때에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근면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을 칭찬하기도 하셨고,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벌리는 마음도 칭찬하셨다. 자본주의적인 말씀도 하셨고, 사회주의적인 말씀도 하셨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지라도 본성적으로 이성을 따라서 행하지는 인본주의적 사회주의가 광장히 성경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념적인 것들은 각자의 신앙적 확신(Paradigm)이기 때문에 논리적 논쟁으로는 설득과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그보다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듯 각각의 이념이 역사적

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어는 주장이 옳고 더 성경적인지 분별하는 척도가 된다.

자본주의의 발생과 폐해에 대해 살펴보자. 16세기 초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유럽은 가톨릭 우세 지역과 개신교 우세 지역으로 점차 나뉘게 된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개신교 우세 지역의 소득수준이 가톨릭 우세 지역보다 높아져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자 가톨릭 지도자들은 당대의 저명한 사회작자 막스 베버에게 그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을 조사해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1년)이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은 믿음의 고용주와 믿음의 피고용자가 만날 때 기업과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 고용주라는 직분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한 사업가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건강하게 기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을 자신의 과시와 사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재투자 한다. 피고용자들은 제품을 잘 만드

는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처우에 관계없이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런 고용주와 피고용자들이 만나면 그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재투자로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베버의 연구 결과다. 그 근본 원인으로 가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의 소지와 묵상을 금지시킨 반면 개신교에서는 자국어 번역 성경 소지와 묵상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풍요한 사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신앙(하나님, 소명)을 버리고 이기주의적으로(자기를 위하여) 살게 된다. 자본주의가 풍요한 사회에서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오용될 때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자본가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피고용자들을 착취하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이익의 극대화만을 노리는 경우가 점점 증가한다.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한 피고용자들은 이에 저항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파업과 태업을 무기로 삼게 된다. 이러한 사회가 되면 기업의 본래 목적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소명

의식은 약해지고, 오로지 탐욕 대 탐욕의 투쟁 상태로 들어가고 만다. 이기적인 고용주와 이기적인 근로자들의 다툼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남기며 사회 전체에 불안 야기시킨다. 사람들이 살기 힘든 상태로 몰아간다. 이러한 경제적 부조리를 바라보며 분노한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개인적 원한까지 실어서 〈자본론〉을 집필하고 공산주의 선언까지 준비하게 된다.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의 경제적인 극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칼 마르크스가 분노한 이유는 결국 돈을 가진 자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적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분노와 정의 감만을 가지고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전제부터 오류에 근거한 것이다.



정대서 장로
(푸른누리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때로 고난을 통하여 깨어짐으로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많은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으로 적어도 10여 년 이상 광야와 동굴과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때로는 미친 행동을 하면서까지 숨어다니고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대부분이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만일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하게 부르짖었던 기도를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부르셨지만 그를 곧바로 왕궁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왕궁 대신 동굴로 보내셨습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주어진 모진 고난과 위협에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낮추시고 후에 들어 쓰십니다. 먼저 높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처절하게 낮추시고 후에 사용하십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드린 기도

시편 142편은 57편과 더불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 배운 교훈을 시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휘하에 있던 3천 명의 군사에게 포위당하고 쫓겨 다닐 때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굴이 ‘아둘람’이라고 불리는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이 동굴에 형제들과 원통한 이들이 모여들어 400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 되었다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다윗 홀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외롭고 힘겨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메아리치는 기도

시편 142:1~7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골짜기가 있고,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골짜기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영혼이 버림받고, 원수의 공격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처절한 고독 속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끊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그 후에 사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시편 142편과 57편 같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믿음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숨길 필요가 없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한 기도를 통해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 드렸습니다”(1~2절).

1절 원문을 보면 ‘나의 목소리’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소리 높여’라고 되어있는데 ‘나의 목소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고상하고 유식한 언어가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억울함, 상처, 아픔, 불평, 두려움 등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했는데 ‘불평’이라는 단어는 불평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낱알이 살피면서 그 사정을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컴플레인(plain)’이라는 단어는 일부분이고, 오히려 ‘콘TEMPLATION(contemplation)’이라는 단어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낱알이 드러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얼마나 남의 문제처럼 기도합니까?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동양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에서는 수치를 감추는 것을 미덕처럼 여깁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 감정을 가리고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보는 흐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는 물론이요, 하나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나까지 기도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상하고 멋있는 모습만 나타내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축복을 가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동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생기는 어두움을 하나님께 낱알이, 꾸밈없이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아픔이든 상처이든 불평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정직한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신다

둘째,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은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3~4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는 더욱 방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바로 이것이 동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다윗이 배운 영적인 교훈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욥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주옥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욥 23:10).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선택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길이 위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숨겨 놓은 덫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덫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셋째,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뭍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5~7절).

다윗이 극심한 고독 속에 있는 상황을 ‘영혼마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육신은 동굴에 있고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육신은 동굴에 영혼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뭍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추방당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자신의 분깃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뭍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14면에 계속)

생명 경시 풍조를 바꿉시다 2. 생명을 살린 엄마 ‘미혼모’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엄마들과 맘앰맘스
(미혼모지원사역팀)



사진은 지난 2019년 맘앰맘스 해오름빌(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웃리치.

대한산부인과사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11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태아들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다. 매일 3천여 명의 아기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용기 있게 생명을 살린 엄마들이 있다. 그 이름은 미혼모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파가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혼모는 문제 있는 여자들 이 아니다. 용기 있게 끝까지 생명을 살린 보석 같은 사람들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사랑 자매(가명)와 이현진 자매는 미혼모다. 그녀들은 가족, 지인, 사회의 반대와 편견을 견디면서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사실 그녀들도 낙태를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꿨다.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태동을 느끼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 도저히 낙태를 할 수 없었다. 그녀들 가장 가까이에서 온누리교회 맘앰맘스(미혼모지원사역팀)가 물심양면 도왔다.

“혼자서 아이 키우기 힘들지?” 비난 대신 존중과 격려를

김사랑 자매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23살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 니다.”

미혼모 대부분이 임신 사실을 알고 김사랑 자매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한다. 김사랑 자매도 그랬다. 임신 사실을 알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다. 남자친구와 그녀의 가족들 모두 아이 낳기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녀도 똑같이 생각했었다. 남자친구는 낙태비용이 비싸니까 차라리 낳아서 입양 보내자는 말까지 했다. 그 엄청난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김사랑 자매가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꿨다.

“태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안 좋은 생각,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아이가 배 속에서 움직이더라고요. 태동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직접 키우겠다고 마음을 바꿨더니 남자친구가 그녀를 극렬하게 비난했다.

“제가 아이를 입양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이라고 비난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네 집 빛 때문에 옥탑방에서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넷이 사는데 그곳으로 아이 데리고 들어올 거냐며 욕박을 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남자친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미혼모 센터에 들어갔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위로와 격려를 해준 사람은 온누리교회 맘앰맘스 소속 권사님이었다.

“처음에는 맘앰맘스 권사님의 연락을 잘 안 받았습니 다.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거부하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시더라고

요. 또 다른 엄마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조언해주셨습니 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고 하는데 같은 말이라 도 저를 다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김사랑 자매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간곡한 부탁을 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아빠가 없어서 그래, 미혼모 아이라서 그렇다’ 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힘듭니다. 보수적인 시각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여자 혼자, 그것도 미혼모가 아이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미혼모들에게 ‘낙태하지 말라’ 는 말은 솔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감수하고 생명을 선택한 엄마들에게 ‘너 왜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는 비난 대신 ‘혼자서 아이 키우기 힘들지? 대단하구나’ 라고 존중하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비밀 언덕이 있다

이현진 자매(35세)는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곳도 부산이다. 부산 토박이인 그녀가 7년 전 혈혈단신 제주도로 갔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다. 이현진 자매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다. 지병(뇌하수체 종양)이 재발하면서 임신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언니와 형부에게 임신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낙태하라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는데 당황했는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지병도 있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를 낙태하려고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낙태하러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마음을 바꿔먹었다.

“초음파 사진을 보자마자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도저히 아기를 죽일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세상에 태어나고 싶었으면 부끄러운 저에게 왔나 싶더라고요.”

이현진 자매는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미혼모 시설을 발견했다. 그렇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제주도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

이현진 자매는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낼 생각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에게 지병이 있

는 것도 모자라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혼자 아이를 돌볼 자신이 없었다.

“아이에게 장애(다운증후군)가 있어서 입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에도 이상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두 달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어요.”

아기는 심장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눈앞이 캄캄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현진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다. 온누리교회 맘앰맘스다. 아기 치료비는 물론이고, 제주도와 서울을 오갈 때마다, 병원에서도 늘 그녀 곁을 지켜줬다.

“치료비를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치료비보다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아이가 치료받으러 두 달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서울에 올 때마다 동행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편견 없이 저를 바라봐주시고, 저를 위해 최선의 조언을 해주 셧습니다. 맘앰맘스가 저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나에게도 비밀 언덕이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용기 있게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고 제주도 까지 갔지만, 사실 이현진 자매는 자존감이 한 없이 떨어져 있었다. 설상가상 갓난아기가 장애가 있고, 본인의 지병도 있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그녀에게 맘앰맘스가 세상에 없는 힘과 용기를 선물했다. 그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맘앰맘스 권사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저에게 맘앰맘스는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정말 포근하고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이현진 자매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미혼모들을 ‘생명을 살린 엄마’ 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혼모들이 배 속의 아기를 쉽게 없애려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기 내어 아이를 낳은 일입니다. 온누리교회와 맘앰맘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혼모들이 건강하게 아이 낳고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누리교회와 맘앰맘스 사역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을 앞두고

“우리가 꿈꾸는 더 멋진 세상!”

NGO 더멋진세상이 오는 4월 24일(토)과 25일(주일) 정기후원약정을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사랑이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지구촌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들은 하나같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그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자 기적”이라고 고백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들이 꿈꾸는 더 멋진 세상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 편집자 주

하나님 사랑 나누는 세상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잠시 멈춤을 경험하고 있다. 국경이 폐쇄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NGO 더멋진세상의 섬김은 쉽다.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일을 NGO 더멋진세상보다 노련하게 해낼 수 있는 NGO가 또 있을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들은 선교지를 예전만큼 자주 나가지 못할 뿐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NGO 더멋진세상 현지 사역자들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바쁜 와중에 코로나19 방역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일도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몇 배는 바빠졌다. NGO 더멋진세상이 이처럼 쉽지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지구촌 이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당신들 나라에서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왜 이곳까지 와서 고생합니까?”이다. 그럼 나는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게 되었고, OECD 회원국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준다. 그러면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눠달라”고 손을 내민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기적이 벌어진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더 멋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세상이다.

/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

한계를 넘어서는 세상



네팔 서부지역에는 태어날 때부터 HIV에 걸린 아이들이 있다.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인도에 갔다가 감염된 채 돌아와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사망하고 나서야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아이들은 고아이거나 한 부모 가정인 대부분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HIV 감염 아이들에게 2014년부터 영양 공급, 학용품,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물림 되는 가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아이들이

10학년까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부모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가 인도에 가지 않고도 일할 수 있도록 방과후교실 스텝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에도 신경 쓰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경작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꿈을 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해서 친척집에 살거나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현장 방문 스텝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아픈 아이들이 조기에 치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빼놓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기 위함이다. 아이들은 점점 공부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있고, 자신감도 키워나가고 있다. 나는 대물림되는 질병, 가난, 계급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멋진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도 섬김의 발걸음을 걸고 멈추지 않는다.

/ 동주연 PM(네팔 HIV 감염아동지원사업)

다음세대들이 부흥하는 세상



농업사업이 진행될수록 네팔 나야상구 지역 주민들의 꿈이 커지고 있다. 남녀 24명이 6개월 동안 교육과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근, 양파, 무 등 뿌리채소 재배법과 녹색 채소 재배, 방울토마토 재배법 등을 배우고 있다. 유기농법을 활용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양계와 염소,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훈련도 하고 있다.

네팔 나야상구 주민들의 신앙도 자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아동 150명, 성인 200여 명이 참석한 부흥회가 열렸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아이들과 주민들을 초대해서 말씀잔치

를 벌였다.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는 부흥을 맛보고 있다. 네팔에서는 한국인 선교사가 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지만, 현지인들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 시켜주고, 지역교회를 지원하면서 현지 교회가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된 주민 중에 농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복음이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신앙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주일학교 교사를 교육할 예정이다. 인근 지역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초청해서 양육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적으로도 빈약한 이곳에 풍성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NGO 더멋진세상에 감사하다. 나는 네팔의 다음세대들이 부흥하는 더 멋진 세상을 꿈꾸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 Kamal(네팔 스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상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더 멋진 세상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응호망과 마을과 가호도 마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돕는 것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NGO 더멋진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식수, 보건, 농업,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발전을 이루고, 주민들 스스로 자립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고 있다.

지난 2013년 아프리카 르완다에 처음 NGO 더멋진세상 지부가 세워졌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다. 마을 곳곳에 우물과 급수탑이 세워지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멀리 물을 뜨러 가지 않아도 된다. ECD센터(Early Childhood Development)가 세워져서 아이들 90명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다. 보건소도 세워져서 산모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농장과 양계장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쳐주고, 소득도 증가시키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다. 종일 집 앞에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분명 지금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공중의 새가 깃드는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 김영일 PM(아프리카 르완다)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립니다”

책 <괜찮아> 작가 ‘명난희 자매’

얼어붙은 고용시장,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코로나19까지...

이 시대 청년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으면 청년들이 하나같이 “요즘은 사람 구실하기 정말 힘들다”면서 우는 소리를 참 많이 한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사는 게 더 힘들다. 세상에서 살면서 모범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서 완수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삶과 신앙, 일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보석보다 귀하다.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만났다.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작가 명난희 자매(SNS청년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작가 명난희 자매(SNS청년부).

던 보석 같은 청년 명난희 자매(SNS청년부)다.

지쳐서 떠난 스위스에서 더 깊이 만난 하나님

명난희 자매에게 그림은 어릴 적부터 언제든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원고지나 도화지를 엮어서 한쪽에는 그림, 한쪽에는 글을 쓰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토록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그려지지 않았다.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은 자매를 스위스로 인도하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에서도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려면 내 안의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속이 텅 비어 보여줄 것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답답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당시 알게 된 한 목사님께서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성서적 기초 상담학교(IBC: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뭐라도 변화를 주자’는 마음으로 무작정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스위스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다.

“성서적 기초 상담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Original Design)이 있는데 살아오면서 부모나 친구, 선생님, 혹은 교회나 사회로부터 듣는 부정적인 메시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해 왜곡된 자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 안에 뒤틀린 자아상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외모, 학벌, 부와 명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찾아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깨달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다

스위스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하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모든 날이 행복하고 순조롭지는 않았다. 대학원을 진학한 뒤에도 불투명한 진로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 자아에 대한 고민이 계속 따라왔다. 스위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다.

“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실적으로 막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다시 찾아왔고요. 그때 스위스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왜곡된 자아와 거짓 메시지들도 생각났습니다. 괜찮지 않았던 저의 모든 순간을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괜찮아’라는 말과 함께 하루 하나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괜찮아 100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림을 그리고 그 작품을 SNS에 기록했다. 스스로 위로하고 싶어서 그렸던 그림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닿았다. 많은 사람이 명난희 자매의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사연을 보내면서 그림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사연을 보내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그림으로 나누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명난희 자매는 현재 SNS청년부 주보에 설교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주보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비전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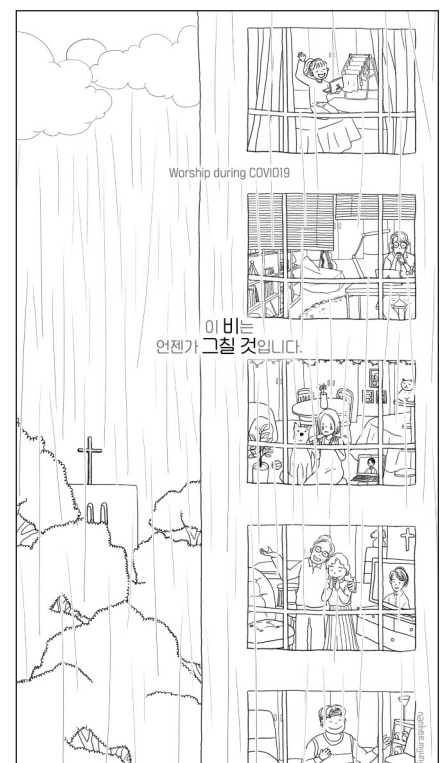
“청년부 리더십 블레싱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인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제

마음에 꼭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사람’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마다 그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림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명난희 자매는 동화 작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관심가지고 있는 주제는 ‘가정’이다.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구상 중이다. 작품을 통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한다.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 주제는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등 성경적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max_guys
- 그라폴리오: m-grafolio.naver.com/creator/339171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20.08.30 SNS청년부 스페셜 주보툰).

코로나19와 장애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20년 기준으로 약 260만 명에 달한다. 이를 5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네다섯 가정 중에서 한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더이상 나와 관계없는 남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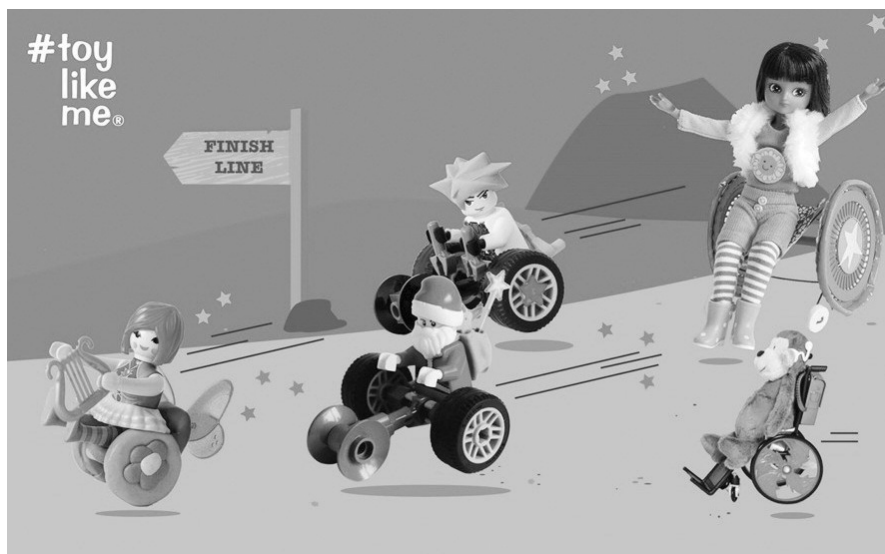
전체 장애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123만 명이 지적장애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은 약 24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수치상으로는 9%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바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나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코 평등하지 않은 재난 더 많은 관심과 배려 필요

장애인사역을 섬기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그로 인해 알게 되는 장애인 가정의 형편은 단순히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미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끔찍한 고통이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특수학교에 보내서 돌봄을 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른 곳을 찾아 맡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맡길 곳을 찾기가 불가능하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의 돌봄에 의존했는데 이들 기관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극히 제한적인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된 것은 학령기 장애인들과 동일하다.

어쩔 수 없이 센터에 사정해서 간신히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는 있는데 긴급돌봄을 제외하고는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라 두 경우 모두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일을



“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

주로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단순히 장애인 자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특수학교 등교가 늦춰지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 자녀를 혼자 돌 수 없는 부모가 생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생계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단절이 비장애인에겐 일시적 멈춤에 불과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겐 오랜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얻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술의 퇴행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나 복지관 혹은 주간보호센터에 갈 준비를 하고, 스스로 버스에 올라타고, 복지관이나 센터에 도착해서는 선생님과 활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일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 경우에 따라서는 십여 년 이상의 반복훈련과 교육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이다. 장애인들에게 규칙적인 일상을 정착시키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코로나19가 빼앗아간 장애인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기나긴 노력을 또 다시 요구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사회성은 없지만 그나마 밖으로 나가 반복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립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게 사라져 버렸다”면서 “가까스로 만들어진 규칙적인 일상이 너무 쉽게 무너져서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자녀를 보는 것

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이 아이를 다시 집에서 사회로 내보내야 하는데 또다시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무너진 일상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걱정되고, 혹시라도 무너진 일상이 회복이 안 되면 영영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걱정했다.

발달장애인에겐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결코 평등하지 않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이 요원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 결코 평등하지 않은 재난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그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한다.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지만,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31년 만에 장애인 아들 찾은 사연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감동적인 사연을 접했다. 잃어버린 장애인 아들을 무려 31년 만에 찾은 엄마 이야기다. 1990년 7월 전북 완주에서 만 6살 지적장애인 남자아이가 실종되었다. 당시 27살이었던 친모는 그 아들을 ‘굴착기를 좋아했던 소년’으로 기억했다. 그날도 소년은 좋아하던 굴착기를 구경한다며 나갔는데 그 길로 사라져버렸다. 친모는 아들이 실종된 지난 31년 동안 날마다 가슴 아파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잃어버린 아들을 함께 찾던 남편은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아내는 남편처럼 아들도 죽은 줄로 알고 마음속에 품고 살려고 했는데 31년이라는 세월도 아들을 찾고자 하는 모정을 포기시키지 못했다.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에 다시금 실종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제출했다. 그런데 유전자를 대조한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올해 1월 친자로 추정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친모에게 보냈다. 재차 이뤄진 검사에서 두 사람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해서 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31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났다.

30대가 된 아들은 실종 당시 논산의 한 거리에서 발견되어 장애인복지시설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너무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이 기사를 접하면서 만약 지역사회 누군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잃어버린 31년이 단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장애인사역을 하면서 가끔 인용하는 ‘Toy like me’라는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장난감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청각장애인 헬크와 휠체어를 탄 슈퍼맨, 보청기를 끼고 휠체어를 탄 원숭이 치타,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산타와 같은 장난감들이다. 이 장난감들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비장애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장난감(Toy like me)을 가지고 놀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단지 돌봄의 대상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장난감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장애인을 단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때 지역사회는 비로소 성숙한 공동체로 완성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지역사회가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순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

“온라인(Zoom)으로 순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만나서 하는 것보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순예배를 드리면 솔직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온전히 삶을 나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순예배를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소속 공동체가 없어질까 봐 불안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온라인 순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롭게 드리는 온라인 순예배는 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온라인으로 순예배를 드려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순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이 있다.

첫째, 순예배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까닭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순’은 작고 연약해보여도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순예배가 세상의 인간적인 모임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20)고 말씀하셨다. 내가 속한 순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께서 바로 거기 계신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을 축복하신다.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온라인 순예배도 성령님 안에서 오프라인 순예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라인 순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둘째, 온라인이라도 순예배는 영적인 공급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한 몸 된 관계에 대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고 말씀하셨다.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어야만 수분과 양분 공급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

어야만 살 수 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는 방식이 바로 ‘순’과 ‘공동체’이다. 순원은 순에 연결되고, 순은 다시 다락방으로, 다락방은 공동체로 연결된다.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온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만 해도 생명의 공급을 받고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순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기만 해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된다. 온라인 순예배도 마찬가지다.

셋째, 온라인 순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 보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프라인 순예배를 드릴 때는 늘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다. 나눔을 하다가 집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온라인 순예배는 그런 제약이 없다. 집에 가야 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전보다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다. 직장 일로 지방에 가 있을지라도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모임이 어려운 지금 온라인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 틀림없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권면하십시오”(히 10:25)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방법으로 더욱 모

이기를 힘쓰기를 소망한다.

넷째, 온라인 순예배는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시기를 앞당기기는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온라인 세상의 도래는 피할 수 없다. 온라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세계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제자훈련이 일어나야 하며,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인간의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새로워야 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온라인 순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우리가 준비되는 모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라인 순예배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혼은 섬김과 하나님 성품으로 빛어가는 과정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생활이 기대와 달라서 고민입니다. 연애하면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서로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정말 사소한 문제들이 다들 거리가 되고,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싸울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이 맞는지 낙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 주례를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나와 아내,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했던 많은 하객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다. 개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각인이 된 말씀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였다. 나에게 결혼은 곧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설렘이었다.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늘 행복할 것이고, 항상 즐거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대로 나의 신혼은 넘치는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꿈같은 시간이었고, 결코 이 꿈 같은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었다. 그런데 결혼 1년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갈등이 있었고, 결국 폭발해서 부

부싸움을 했다. 물론 스트레스가 많은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상황이라서 서로가 심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것을 알았지만, 참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과 분노와 독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때의 그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곧 행복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부부싸움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결혼이 아닌데’라는 좌절과 절망감이 휩싸였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애써하게 화해하고 다시 알콩달콩 살았지만, 깨어진 나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나는 너무 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갓 결혼한 사람 중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인 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결혼의 환상이 때로는 낭만으로 여겨져서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의 너무 현실적인 면만 보는 것도 결혼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결혼의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고, 결혼의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크게 낙담하거나 불만을 경험할 수 있다.

커플관계분석검사(Prepare-Enrich) 결과 결혼에 대한 환상적 기대에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성적으로 늘 만족한 생활을 할 것이다”, “결혼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낭만적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 친밀도는 평생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배우자는 나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등이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결혼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요구 혹은 환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허기와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다.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배우자,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결핍되어 있었던 심리적인 부분을 채워줄 이성을 찾아 결혼한다. 늘, 항상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면 좋겠다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지만 이러한 바람은 이루기 어려운 목표다. 부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상호 요구가 만족된다면 행복한 결혼이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좌절된 결혼이라고 느낄 것이다(하워드 클라인벨).

결혼은 서로를 돌보는 헌신과 사랑을 통한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존 패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쩌면 부부의 갈등이 폭발하는 부부싸움은 자신과 배우자의 내면 깊숙하게 숨겨져 있던 그 무엇

인가를 인식하고 대면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상호관계에서 나는 언제 화가 나는지 살펴보자. 배우자가 내 말에 공감하지 않을 때, 나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화가 나는 순간 결혼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불행감을 맛보는 것이다. 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상황이 왜 불편한지 충분히 돌아보고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함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을 닮아감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친밀한 여러 상호작용을 하면서 견고한 결혼을 만들어가야 한다. 행복의 관점으로만 결혼생활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빛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많은 결혼에 대한 이슈들이 이해될 것이고 부부가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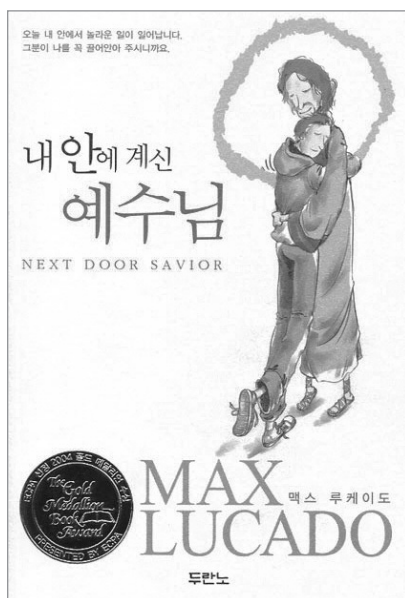


황국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옆집에 계신 구원자(Next Door Savior)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맥스 루케이도 저 | 두란노

2004년 1월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나의 마음이 매우 분주했다. 전에 섬기던 교회들에 비해서 매우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나는

교역자들과 간사들, 성도들의 숫자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웠다. 온누리교회에서 당시 진행하고 있던 셀 수 없이 많은 스쿨과 사역들과 모임들로 인해 마음이 더욱 불안정했다. ‘빨리 적응해야 할텐데’라는 조급한 마음이 나를 더욱 사역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갔다.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안정을 위한 기도’였다.

기도하던 중에 내 자리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을 한 권 발견했다. 그 책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예수님처럼〉이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문구를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책을 다시 정독하게 되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를 인도했다. 나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온누리교회를 섬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그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중에 두란노에서 신간으로 출판된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소개할 책이다. 책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Next Door Savior(옆집에 계신 구원자), 오늘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분이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니까요.”

이 문장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책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옆집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오신다. 같은 동네의 골목을 걸어 다니시며 위로와 평안,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픔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뗏목하지 못해서 웅크리고 있는 당신,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당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 아프고 고통받는 당신, 슬픔에 젖어 있는 당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당신,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당신, 깊이 후회하고 있는 당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다. 그리고 따스한 품으로 당신의 아픔을 꼭 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겪어서 다 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다. 또한 죽음의 그늘에 눌러있는 우리를 찾아와 생명의 손길로 터치해주시며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라고 격려해주신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미혹과 악한 영과 귀신 문화에 빠지고 놀려 살아가는 인생에게 ‘제정신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갖춰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롬 13:10~14) 강하게 선포해주신다. 우리 바로 옆집에 계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질문하신다.

“네 쓰레기를 내게 주겠니?”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던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해주셨다. ‘예수님이 버림받아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버림당해 주셨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늘 우리 옆에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한다.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점쟁이에서 전도사로 ‘백사검’



구한말 개성에는 선교사들도 놀라게 하는 시각장애인이 한 명 있었다. 그 주인공은 성경을 줄줄이 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백사검’이다.

백사검은 9살에 큰 병을 앓고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백사검은 형의 권면을 따라 생계를 위해서 점치는 법을 배웠다.

백사검의 눈치가 제법 빨라 돈과 명성을 얻었다. 20년 가까이 점쟁이로 활동하면서 ‘명복(名卜)’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그의 명성은 양반집에서 딸을 시집보낼 정도였다고 한다.

명성을 얻을수록 백사검은 도(道)를 구하기 위해 수행을 했다. 1897년 정월 산중에서 100

일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한 매서인이 백사검을 찾았다. 남감리회 매서인 김제옥이 〈인가귀도(引家歸道)〉(영국 선교사 존 그리피트가 쓴 책)라는 소설을 건넸다.

마지 못해 인가귀도를 받은 백사검은 며칠 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算筒)은 의의 산통이나라. 받아가거라.”

잠에서 깬 백사검이 아내에게 인가귀도를 읽어달라 부탁했다.

“내가 꿈에 얻은 산통은 바로 이 책이요. 김제옥이라는 여자를 불러주시오. 나도 예수 믿겠소.”

그 이후 백사검이 세례를 받고 1899년부터 전도인에 임명됐다. 백사검은 리더 선교사와 개성, 장단 등지에서 1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장단읍교회, 감암리교회, 개성남부교회 등을 세우기도 했다.

동학접주에서 목회자로 ‘방기창’



동학접주는 동학의 지역 지도자다. 100명을 전도해야 동학접주가 될 수 있었다. 방기창은 32세에 동학접주가 되어 포교에 전념했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방기창은 새로운 도(道)를 찾아 헤맨다.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다는 ‘벽곡’이라는 도법을 찾던 방기창이 새로운 도를 익히고 있다는 사촌을 찾아간다. 사촌은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사촌과 함께 마포삼열 선교사를 만난 방기창은 〈덕혜입문(德慧入門)〉(열여덟 가지 기독교 덕목)이라는 책 한 권을 받는다. 덕혜입문을 읽은 방기창이 “끝까지 주님

을 믿겠다”고 고백한다.

방기창은 마포삼열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숭인학교 교사, 전도사, 매서인 등으로 활동하며 복음을 전했다. 1907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인 최초 7인 목사가 되었다.

방기창 목사는 아들 방화중과 함께 독립협회 평양지회의 회원으로 참여해 길선주, 안창호, 한석진 등과 활동했다. 1911년 10월 11일 소천하기까지 방기창 목사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한다.

방기창 목사의 삶과 신앙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방기창 목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그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방기창 목사의 장례에서 이기풍 목사는 “주를 믿으시는 첫날부터 주를 위해 높은 산을 넘어다니며 험한 길을 다녔다”며 그의 열심을 본받자고 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불후의 내일

병원 앞 정원 부슬비 속에
여러 빛깔로 핀 라일락 무리
머리와 사지가 바람에 날린다
환영인지 환송인지 애매하다
기쁜 춤인지 버거운 몸짓인지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해 주리

누구를 보러 오는지 보고 가는지
무얼 듣고 가는지 들으러 오는지
수많은 얼굴이 현관을 드나든다
“이 나이에 이만하면 되었지”
“그 나이에 어찌 그런 일이 생기나”
“차도가 없으니 이제 각오하라나 봐”

먹구름 가운데서도 언제나
비바람 속에서도 어디서나
우리의 정원에는 꽃이 피어나지
상황에 무너져 울고 불지 않고
불후의 내일에 모두를 맡겼기에
오늘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않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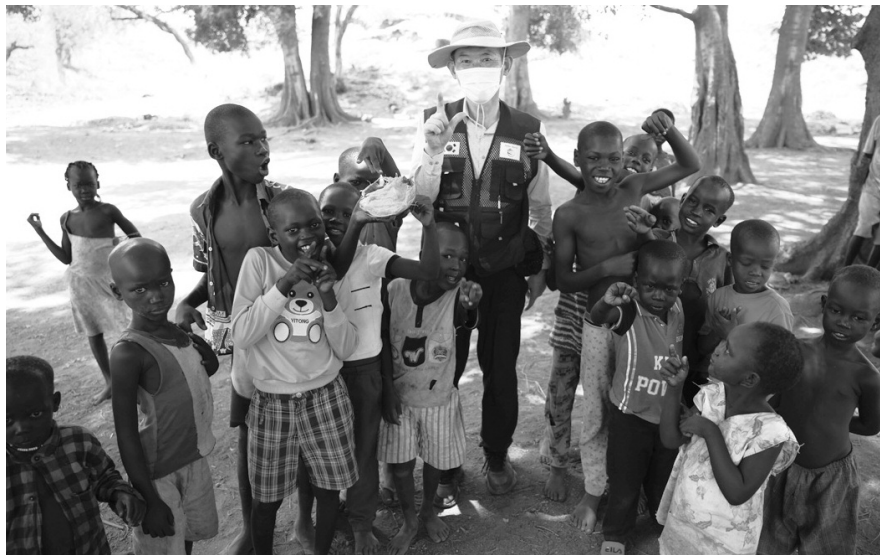
코로나19,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난민지원

코로나19로 모두가 출국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는 지난해 11월 26일 아프리카 우간다로 출국했다. 나는 우간다 북부 굴루 지역에서 난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은 결혼 초기였다. 당시 출석하던 교회 부흥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 중간에 목사님께서 “선교하실 분 일어나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2020년 1월 NGO 더멋진세상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난민지원 사업 담당자를 찾고 있다는 공고를 접했다.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이 길이나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곧바로 아내와 상의했다. 아내는 “당신이 하고 싶으면 지금 이 기회이니 도전해 보라”고 응원해주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직장을 내려놓고 우간다 난민지원 사업에 지원했다.

결단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운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20년 3월 출국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지연되었다.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졌다. 직장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내 마음이 더욱 어려웠던 것



윤정화 성도(동작공동체)는 NGO 더멋진세상 난민지원 사업에 동참해 우간다에서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같다. 어느 날 아침 베란다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잘못 결정한 건 아닐까?’라는 조바심이 생겼다. 지난해 4월부터 NGO 더멋진 세상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우간다지부와 교류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

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셨다.

드디어 11월 26일 새벽이 됐다. 이 새벽이 조금 더 지속되어서 동이 늦게 트기를 바랐다. 우간다로 가면 그리운 가족은 물론이고 함께 믿음 생활 하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1년 동안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3살 된 손자도 눈에 밟혔다. 나는 인천

공항 입국장을 들어가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아쉬운 마음에 배웅 나온 가족들과 집사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는데 웬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다. 아쉬움과 걱정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우간다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의 편안했던 삶과 비교하면 불편함이 많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를 통해 부드리마를 난민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품고 있던 선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실행에 옮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선교의 자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헌금으로, 누구는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를 실행하기를 소망한다. 각자의 모양대로 선교에 동참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 윤정화 성도(동작공동체)



코로나19, '성경일독'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공동체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하나공동체에서는 남북한 출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어린이부터 연로한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령대가 한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시골 교회처럼 정겹다.

하나공동체에서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46명이 참가했다. 그중에서 37명이 완주했다. 완주한 이들 중에서 11명이 탈북민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탈북민 지체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탈북민 지체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노력했다.

81세 이민음(가명)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기 전인 오전 시간에 성경일독을 마쳐야지’라고 결심하셨다. 성경을 읽다 보니 재미가 붙었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셨다. 허리와 무릎이 심하게 안 좋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픈 적이 많았는데, 어느새 사는 데까지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하셨다.

80세 조신실(가명) 어머니는 딸이 일하느라 집에 가끔 오는데 혼자 보내는 그 지루한 시간을 성경일독과 성경일독을 하면서 보냈다고



사진은 하나공동체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점검표. 남북한 성도 46명이 참가했다.

하셨다. 성경필사와 성경일독을 하면서 성경이 쉽고 재미있어졌다고 하셨다. 10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말씀을 접했는데 그때는 거짓말 같았는데 이제는 믿어진다고 하셨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게 합니다”라는 고백이 어찌나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지 모른다.

막노동을 하는 29살 조다윗(가명) 형제는 일하러 나가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한 줄 소감’을 단체채팅방에 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했다.

“예전에는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으로만 돌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는 되지만 기

역하는 것이 안 되었는데 콩 위에 뿌린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생각이 변한 것 같아요.”

함소망(가명) 자매는 3년 전 인공관절 수술과 허리 협착, 목디스크로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빠짐없이 성경일독을 하면서 ‘아,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꼭 읽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매일 새벽 첫 번째로 한 줄 소감을 올리신 전사랑(가명) 집사님, 친정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보호를 체험했다고 고백한 권사님, 다리 복합 골절로 불편한 일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견뎌낸 자매님, 학업과 고단한 일과 중에도 성경일독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있다. 그렇게 모인 46명이 단체채팅방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읽음으로써 사이가 더욱 친밀해졌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한 모든 이들의 간증이 보석보다 귀하다. 그 귀한 간증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이 설레고 두근거린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안희정 성도(하나공동체)



온누리교회가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Pray for Myanmar'를 6월 4일까지 드린다.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6월 4일까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Pray for Myanmar' (이하 미얀마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가 6월 4일까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미얀마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유튜브 채널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담당목사, 미얀마 현장 선교사 및 성도들의 기도편지가 하루에 한 편씩 게재된다. 미얀마 회

복을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기도문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된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는 "미얀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라며 "하나님이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 흘림을 멈춰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노 목사는 덧붙여 "미얀마

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사람들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험에서 구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지난 4월 12일까지 시위대와 민간인 706명이 목숨을 잃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여선교사 은퇴관 건립 모금 캠페인

강원도 문막 6월 완공 예정

CGNTV가 독신 여선교사를 위한 '세빛자매회 은퇴관 건립'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세빛자매회 은퇴관은 독신 은퇴 여선교사들을 위한 안식처이다. 오는 6월 강원도 원주 문막에 완공될 예정이다. 세빛자매회 은퇴관은 은퇴 선교사 생활, 선교사 양성, 지역 교회 섬김 등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빛자매회 건축위원장 주선에 명

예교수는 "주님을 위해 희생했던 선교사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독신 여선교사 은퇴관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후원: 농협 351-1176-6466-93

(예금주: 사단법인 세빛자매회)

문의: CGNTV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캠페인

4월 30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에서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4월 30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목회지원실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www.blooddonation.co.kr)도 운영 중이다. 헌혈 캠페인 소개, 헌혈 참여자 통계, 참여 교회 및 단체

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 헌혈 희망자와 단체 헌혈 희망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25인 이상 단체 헌혈을 신청하면 적십자사와 일정을 협의해서 헌혈 버스를 보내주기도 한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에는 온누리교회 및 38개 교회와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청파노인복지센터 개관 12주년

지난 14일(수) 온누리복지재단 청파노인복지센터가 개관 12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는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이사의 축사와 직원들의 감사 인사가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청파노인' 4행시 짓기, 축하 댓글 달기 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청파노인복지센터가 될 것"을 약속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창조신앙스쿨 수강생 모집

서빙고 5월 4일, 양재 5월 2일부터

창조신앙스쿨 서빙고반과 양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창조신앙스쿨은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양재 창조신앙스쿨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창조신앙스쿨은 창세기 및 성경 전

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역사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에 기초한 창조론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서빙고반 010-7292-2349

양재반 010-4658-0987

참 신앙과 거짓 신앙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증거와 기준을 알려주는 온라인 세미나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5월 10일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 참 신앙의 증거에 대한 질문에 성경적 답을 제시한다. 감정의 문제, 열심과 동기의 문제, 태도와

순종의 문제 등을 주제로 김형익 목사(벧살롬교회, <설교 듣는 법> 저자)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5월 3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게시 후 2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세계관학교 '온라인 북콘서트'

4월 20~21일, 27~28일 오후 8시

온누리 세계관학교(OWA)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삶의 기준을 정립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밖의 세상을 분별하도록 돕는 세미나 '온라인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4월 20일(화)~21일(수), 27일(화)~28일(수)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Zoom)

으로 진행된다. 온누리 세계관학교 '온라인 북콘서트'에서는 '신학과 역사학을 통해 본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과대학원, <충돌하는 세계관> 역자)가 강의한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3215-3637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성도이다. 지원서류는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서, 임

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 등이다. 수련비용은 한 학기당 30만 원(총 2학기).

문의: 서빙고 010-4215-3675

양재 010-4684-7536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2539-5665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족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을 양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7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교재, 물품 포함). 문의: 02-2182-9114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P.P(Power Prayer)기도회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4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 세례 간증



/ 노미현 성도(가정사역공동체)

누군가 선물을 주겠다는데 거절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부담스러워서 받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해볼 수도 있다. 또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거절하기도 한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주님이 어느 날 이미 4명의 자녀가 있는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가볍게 넘겼는데 똑같은 마음을 세 번이나 받았다. 나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 싶었다. 마음에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결단하면 아이가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3년을 더 기다렸다. 그때가 정확한 주님의 때였음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음을 알고 다섯째 아이를 확인하러 병원에 갔다. 쌍둥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하고 유산한 경험이 있다. 다시 쌍둥이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

나는 노산에다가 다섯 번째 제왕절개 수술

을 해야 하는 초고위험 산모였다. 주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배 속에 있는 아기와 우리 가정을 돌보셨다. 입덧이 이전 아이들보다 두 배로 심해서 괴로울 때는 학교 엄마들이 음식을 가져다주셨다. 집안일이 한없이 밀려 있을 때는 순에서 집안일을 대신 해주고 가셨다. 임신으로 늘어난 몸무게 탓에 임신성 당뇨 위험이 있었고 잘 걷지도 못했다.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단일제대동맥 전단을 받기도 했다. 배 속에 있는 아기들과 내 몸을 돌보느라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득했다.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쌍둥이들은 2.8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생겨난 아기는 없다. 여섯 아이를 낳고 보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더욱 가슴 깊이 와 닿는다.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자 한다. 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박은주 성도(염산교회)

‘전도폭발’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지하철에서 가끔 보는 ‘예수전당 불신자옥’이 연상될 만큼 참으로 원색적인 단어였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신앙을 재정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직장을 쉬고 있는 상태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폭발훈련 수강신청을 했다. 전도폭발훈련이 시작되고 이 수업이 얼마나 강도 높은 줄을 알게 되었다. 과연 내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그러나 제인량 목사님께 “불어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 수업을 들었다.

복음 제시 개요를 처음 암송하는 날이었다. 서론부터 도전을 받았다. “영생이 제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문장을 암송하는데 분명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기쁘게 살지 못했는지 묵상하게 되었다. 그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른다.

필수 훈련 코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내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복음 제시 개요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었다. 복음 제시 개요 내용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였기에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전도자의 마음이 생겼다. 예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도 생겼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다듬고, 전도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심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 그룹장님, 훈련자님, 그룹의 선배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분들,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전도폭발훈련은 믿는 자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훈련 코스다. 신앙을 점검하고 다지는 귀한 시간인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지영철 성도(경기A공동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멀리 떨어진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하며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구별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

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창조 목적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보냄 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깊이 생각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깊이 묵상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음 이후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간다.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창조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 비전통독 수료 간증



/ 광희경 성도(신용산공동체)

딸기 발농사

민음이 해이해졌다고 느껴지거나 다른 곳으로 마음이 향하려고 할 때 나는 말씀을 통독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싶고, 말씀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고 해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삶이 공허함으로 가득해진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비전통독 강의를 들었다. 90일 동안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었다. 저녁 시간에는 한 줄로 묶인 자매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섬겨주시는 분들의 수고와 함께하는 조원들의 나눔이 큰 힘이 되었다. 그 덕분에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은혜롭게 통독할 수 있었다. 비전통독 사역팀에서 함께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지금도 나는 비전통독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코로나19는 다른 사역팀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전통독 스태프에게 큰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을 안겨주었다. 예정했던 비전통독 강의를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온라인으로 시작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잠깐의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러나 장로님과 팀장님의 헌신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비전통독을 시작할 때 마음이 설렜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달가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온라인 비전통독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안정되게 진행됐다. 조별 모임도 순조로웠다.

비전통독은 나에게 사역이라기보다 은혜를 추수하는 밭이다. 지금은 워싱턴으로 가신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딸기 발농사’를 계속하려고 한다. 딸기는 하루 정해진 말씀을 읽고 난 다음 완독을 표시하는 그분과 나의 약속이다. 농사는 말씀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딸기 발농사는 보이는 세상으로 향하는 눈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한 영적 공간이다. 송석근 목사님과 팀장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디지털 창조과학 플랫폼과 콘텐츠



이경호 장로
(부천 온누리교회,
한국창조과학회)

1992년 대전 과학 엑스포를 앞두고 내가 근무하던 해사기술연구소에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가 들어왔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노아방주의 조선공학적 안전성 평가를 실험해 보고 싶다고 했다.

모태신앙이었던 나도 그 실험을 하면서 ‘자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루에도 열두 번 ‘결과가 안 좋으면 조금이라도 고쳐야 하나?’ 하고 고민했었다. 내 우려와는 달리 노아방주는 구조적 안전성, 복원 안전성, 파랑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설계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탁월하고 완벽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완전한 창조과학자가 되었다.

내가 지난 1월부터 한국창조과학회 제8대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30년 전만 해도 창조과학은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창조를 믿고 과학적으로 변증하는 창조과학자들이 유사과학자로 여겨지고 있다. 유신진화론과 타협이론들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서 교회조차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있다.

창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올해는 한국창조과학회가 40주년을 맞는 시점이다.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불혹으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완숙함을 가져

야 할 때다.

초대회장이셨던 고 김영길 장로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창조신앙을 지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다음세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중에서 하나가 취임식에서 공표한 VR/AR(증강현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창조과학 전시관이다.

지금까지 창조과학은 문서, 강연 중심이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딱딱했다. 나도 창조과학 강의를 나갈 때면 최대한 재미있는 강의로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곤 했다. 다음세대를 위해서 창조과학은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 VR/AR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창조과학 전시관은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의 AIG는 캔터키주에 실제 크기의 노아방주 전시관을 만들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VR/AR 디지털 창조과학 전시관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조과학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VR/AR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창조과학 플랫폼과 콘텐츠를 만든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어디든지 디지털 창조과학 전시관이 될 것이다. 많은 헌신과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세대를 위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꼭 이뤄내야 할 비전이다.

하나님께 나를 조선과학자,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으로 세우신 이유를 묻곤 한다. 내가 조그만 불씨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선포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



정인숙 권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지난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했다. 전 세계는 팬데믹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이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내게 들렸다.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분명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 그 사실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 하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

코로나19 시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려움을 만들었다.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었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삶과 신앙을 차근차근 돌아보았다. 돌아본 시간 속에서 교회가 중심이었던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됐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더욱 친밀하고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 마음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상황에

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였다. 섬기고 있던 다문화예배와 M센터사역이 걱정되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기도 끝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 대신 각오가 생겼다. 전도와 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하고 있던 일대 일제자양육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다문화가정 자매들을 찾아가 심방하고, 전화로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회피하고 두려워하던 지체들이 이제는 더욱 반기고 고마워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매들과 전보다 더욱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공동체 지체들과도 온라인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채팅방을 통해 100일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기도 하고, 큐티나눔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한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도 감사한 것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순예배와 기도모임을 이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코로나19로 가로막히고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켜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다. 예배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는데 여전히 나는 삶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보다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나는 코로나19가 두렵지 않다!

신앙에세이



조준목 목사
(열린새신자예배)

과거부터 전쟁은 언제나 치열했다. 결과에 따라 부족 혹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모든 소유와 자유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비록 총탄이 빗발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치열하고 처절하다. 우리는 이 치열하고 처절한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전쟁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인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어떤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과 욕망만 있을 뿐이

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인간에게는 창조의 순간부터 성취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창 2:15).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에덴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존재했다. 지키기 위해 직면한 전쟁에서 이겨야 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 아담은 무참히 실패했다. ‘지키라’는 명령에 대해 안일하기 짝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창조주의 축복도, 배우자와의 친밀함도, 에덴의 풍요함도 모두 빼앗겼다. 그리고 인류에게 매임을 물려주었다. 그 상태를 로마서는 이렇게 묘사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 했다면”(롬 5:17a).

관점의 전쟁

인간은 종, 패배자,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반전의 전략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굳게 서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 5:1).

이 전쟁의 이름은 바로 ‘관점의 전쟁’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보는 관점의 전쟁을 치렀다. ‘자신을 신이 되게 할 열매인가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할 열매인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됐다.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도 이 관점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마음에 내키는 관점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개성의 문

제는 더욱 아니다. 생명과 죽음의 관점이 있고, 승리와 패배의 관점이 있다. 우리는 살게 하는 관점을 취해야 하고, 그 관점 위에 인생과 사회를 세워야 한다.

C.S. 루이스는 이 전쟁에 군사들을 소집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예수님께 진실하고자 한다면 기독교인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묵인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온누리교회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깨어있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온누리 세계관학교 '온라인 북콘서트'
주제: 신학과 역사학을 통해 본 기독교 세계관
일정: 4월 20~21일, 27~28일, 오후 8시
문의: 02-3215-3637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동굴 속에서 메아리치는 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은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기에 두렵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픈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피난처요, 분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기 전에 동굴로 먼저 보내셔서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동물의 우리에 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 대한 학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구간이고, 또 하나는 지하 동굴입니다. 베들레헴 근처 산악지대 거주민들의 마구간은 사실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마구간이면서 동시에 지하 동굴이었다는 학설을 저는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은 사람들의 발 밑에 있는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세상의 바닥 밑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땅 아래 하늘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과 동등한 수준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있는 아들 람 동굴같이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 있는 것일

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도 영혼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고난에 처하면서 비로소 발견한 것이지만 고난이 없을 때도 영혼은 감옥에 있습니다. 동굴에 있거나 왕궁에 있거나, 가난하나 부하나 모든 인간은 영혼이 감옥에 있습니다. 죄의 감옥, 세상의 감옥, 자기 자아라는 감옥에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지하 동굴에 낮아지심으로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것은 모든 영혼을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굴 같은 고난에 처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이 갇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동굴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통해 다윗이 험악한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짐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세 왕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고통 속에 두신 것은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을 미리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권력이 주어지고, 왕의 위치가 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울로 하여금 미리 다윗을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죄의 감옥, 자기 자아의 감옥, 이 세상의 헛된 이념과 사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동굴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감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이 영혼의 감옥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

의 피난처시요 분깃임을 고백하며 찬양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 교제의 즐거움 소망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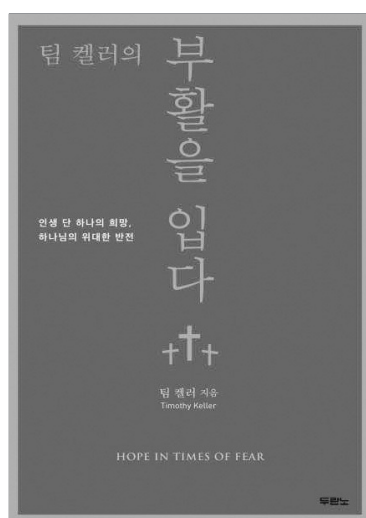
탄식과 하소연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예배의 기쁨을 소망하고, 교제의 즐거움에 대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참된 예배자,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진 고난 속에, 어두운 동굴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메아리치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찬송으로 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절한 고독 속에 내버려 두신 것은 장차 그에게 주어질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고난, 동굴 속에 우리가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분깃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길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고 꾸밈없이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예수 부활의 능력과 비밀

하나님, 말씀, 영혼, 가족, 천국, 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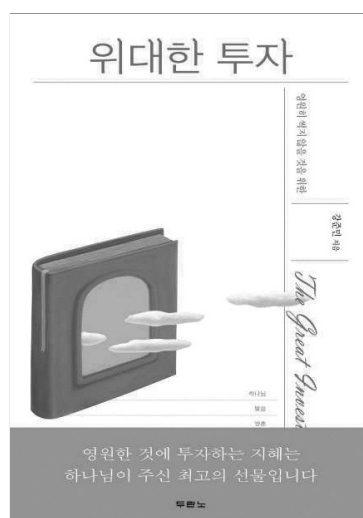


〈팀 켈러의 부활을 읽다〉
팀 켈러 저 | 두란노 | 20,000원

이 책에서 팀 켈러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수의 부활을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기적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와는 상관없는 과거 사건으로 생각하지는 않은지 질문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고 선포한다. 예수의 부활만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재창조하는 힘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예수 부활의 능력과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 C.S. 루이스’라 불리는 팀 켈러의 신간이 나왔다. 책 <팀 켈러의 부활을 읽다>이다. 이 책은 팀 켈러가 책장암 투병 중에 집필했다. 그의 진솔하고 힘 있는 신앙고백이 담겨 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의 부활’이다. 1부 ‘답 없는 세상, 희망을 묻다’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고증한다. 2부 ‘부활 복음으로 성경과 인생 새로이 읽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원리임을 고찰한다. 3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다’에서는 마리아, 요한, 도마, 베드로, 바울 등 성경 인물들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희망 없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한다. 4부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부활의 권능을 읽다’에서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을 살펴보고, 부활에 힘입어 두려움에 맞설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위대한 투자〉
강준민 저 | 두란노 | 10,000원

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책 <위대한 투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투자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안내하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가장 위대한 것에 투자하기를 촉구한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유통기한이 짧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영끌, 빚투 등 다양한 주식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투자에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더 기대려고 하고, 그것으로 안정을 찾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의 <위대한 투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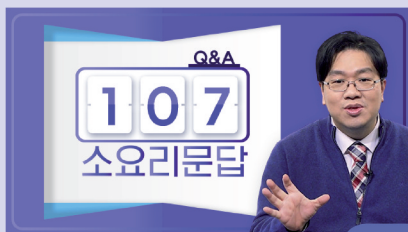
책 <위대한 투자>는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투자해야 할 여섯 가지를 말한다. 하나님, 말씀, 영혼, 가족, 천국, 그리고 성품이다. 이 여섯 가지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이 여섯 가지에 투자하는 것을 ‘위대한 투자’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위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도, 올바르게 선택할 수도 없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포당

‘포당’에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신앙성장의 기쁨을 누리세요

▶ 포당 오리지널 콘텐츠



Q&A 107 소요리문답

총 108강

이정규 목사 / 시광교회

웨스트민스터 107개 소요리문답을
누구나 배우기 쉽게 알려줍니다.



15분 기독교 역사

총 15강

최영근 교수 / 한남대 기독교학과

기독교 역사 속 주요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웁니다.



부모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

총 3강

신형섭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가정에 온전한
예배가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 포당 키즈 콘텐츠



씨 키즈

총 13편

바닷속 친구들 씨 키즈(Sea Kids)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예고클럽 주일 영상 예배

총 40편

한국교회 유아유치부를 위한
‘예수님의 꼬마들’ 예배로 풍성한
은혜를 나눕니다.



바이블맨

총 26편

말씀으로 승리하는 바이블맨과
함께 아이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모바일에서 ‘다모음’ 앱 다운받아 간편하게 CGNTV 후원하기
‘다모음’ 앱 설치 후, CGNTV 후원하기 선택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포당 Fondant’ 앱 다운로드하기

